

# 두 개의 외연 이야기

— 중국어의 부사어, 경동사, 부가논항, 목적어 전치에서 보이는 증거 (1)\*

Wei-Tien Dylan Tsai(蔡維天) 著\*\*

林姬炫 譯\*\*\*

## 목차

- 0. 서론
- 1. 내부 부사어 vs. 외부 부사어
  - 1.1 거시적 맥락에서 'How'와 'Why'의 교체현상
  - 1.2 내부 채귀사 vs. 외부 채귀사
- 2. 내부 경동사 vs. 외부 경동사

\* Tsai, W.-T. Dylan(2015), "A Tale of Two Peripheries: Evidence from Chines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and Object Fronting, In *The Cartography of Chinese Syntax: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11, edited by W.-T. Dylan Tsai, 1-3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역주] 본고는 원저자와 옥스퍼드대학출판사의 저작권 동의를 얻어 번역을 진행하였다. Tsai(2015)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2장은 비논항 성분을, 3-4장은 논항 성분을 대상으로 내부-외부의 구분을 논의하였고, 5장에서는 이들 사이의 상호 분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원문의 분량과 내용구성을 고려하여, 0-2장과 3-6장의 분할연재 방식으로 번역 소개하고자 한다. 원문의 미주는 각주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 臺灣 國立清華大學 語言學研究所 教授

\*\*\* 송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국문제요

본고는 Dylan Tsai(2015)의 전반부를 번역한 것이다. Tsai의 연구성과는 중국어 기능성분의 지형도를 통해 중국어 문법 구축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Tsai(2015)에서는 중국어의 기능성분은 경동사구 외연과 좌측 외연이라는 두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통사-의미 접합면에서 각각 동반성과 인과성에 결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의문/재귀 부사어, 경동사, 부가논항, 목적어 전치 등 중국어 및 언어 교차적인 다양한 사례들은 내부-외부 이분법의 존재에 강력한 입증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형학적인 접근법에 기초하여 통사-의미의 사상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심어: 경동사구 외연, 좌측 외연, 내부-외부 이분법, 의문/재귀 부사어, 경동사, 부가논항, 초점

## 0. 서론

본고는 최근의 탐구를 Belletti(2004, 2005)가 제시한 경동사구(light verb phrase: *vP*)의 외곽을 둘러싼 외연부(peripheral area)에 접목시키는 데서 출발한다.<sup>1)</sup> 이러한 시도에 중국어는 이상적인 검증 무대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교착성(agglutinating)이 강한 타 언어에 비하여, 중국어는 언어표현이 흔히 분석적으로(analytically) 구성되어 있으며(Huang(2004) 참조), 그 ‘완화

1) 본고는 Adriana Bellitti, Lisa Cheng, Candice Cheung, Yang Gu, James Huang, K. A. Jayaseelan, Kazunori Kikushima, Audrey Li, Luther Liu, Keiko Murasugi, Paul Portner, Mamoru Saito, Arthur Stepanov, Rint Sybesma, Sze-Wing Tang, Ting-Chi Wei, Iris Wu, Barry Yang과의 토론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수년간 영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Memo Cinque, Richie Kayne, Luigi Rizzi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본고의 작성에는 蔣經國국 제학술교류기금회, 대만국립청화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대만국가과학위원회(NSC 89-2411-H007-046, NSC 94-2411-H-007-020, NSC 96-2411-H-007-026)의 지원을 받았다.

된(loosened)' 부분들은 최소주의의 방식으로 기능투사(functional projection)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즉, 어휘적 우선권(Lexical Courtesy)의 개념과 유사한 맥락에서, 병합(Merge)이 이동(Move)에 선행한다).<sup>2)</sup> 본고는 이들의 분포가 Rizzi(1997, 2001)의 경동사구 외연(uP periphery)과 좌측 외연(left periphery)이라는 두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통사-의미 접합면(interface)에서 각각 동반성(comitativity)과 인과성(causality)에 결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1. 내부 부사어 vs. 외부 부사어

### 1.1 거시적 맥락에서 'How'와 'Why'의 교체현상

영어 'why'와 'how come'의 비대칭 현상에 대한 Collins(1991)의 초보적 연구 이래, 다양한 언어에서 의문부사어(*wh*-adverbials)의 분포와 해석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중국어에서는 통사적 분포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구분이 관찰된다(즉, Tsai(2008a)의 내부(inner) 의문부사어와 외부(outer) 의문부사어의 구분으로, 이는 전통적 분류에서 대략 동사구 부사와 문장 부사에 대응된

2) Chomsky(2000)의 관찰에 근거하면, 병합은 이동보다 우선시된다. Tsai(1994b, 1999)에서는 어휘적 우선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i) 어떤 언어에 병합의 선택권이 있다면, 항상 이를 사용해야 한다.

[역주] 형식표지가 발달된 굴절어나 교착어와 달리 고립어인 중국어는 문장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이 독립된 투사로 구현되는 분석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문의 '완화된 부분'이란 중국어에서는 어휘적 굴절이나 형식표지의 첨가를 통한 엄격한 형식 변화나 제약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덧붙여 '최소주의의 방식'이란 언어 운용에서의 경제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병합은 이동을 통한 연쇄(chain) 형성에 비해 도출과정의 단순화와 최소화를 담보하므로, 양자가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병합이 선호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원문의 'courtesy'를 '우선권'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다). 본고는 이러한 내부-외부의 이분법을 통해 경동사구 외연과 좌측 외연의 구분보다 쉽게 관찰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怎麼’는 (1a)와 같이 미래 양상조동사(future modal)보다 선행할 때 원인(causal)으로 해석되는데 비하여, (1b)와 같이 조동사 뒤 위치에서는 도구(instrument)의 의미를 지닌다.<sup>3)</sup>

- (1) a. 他們怎麼會處理這件事? [외부 ‘怎麼’ > 조동사]  
 (그들은 **어째서** 이 일을 처리하나요?)  
 b. 他們會怎麼處理這件事? [조동사 > 내부 ‘怎麼’]  
 (그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국어의 ‘爲什麼’ 또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2a)에서 외부 ‘爲什麼’는 부사처럼 기능하여 미래 조동사 뒤에 출현할 수 없으며, 그 뜻은 오직 이유(reason)를 묻는 질문에만 국한된다. 반면, (2b)의 예시처럼, 내부 ‘爲(了)什麼’는 전치사구와 유사하여 전형적으로 미래 조동사 뒤에서 목적(purpose)을 묻는 질문에 사용된다.

- (2) a. 阿Q爲什麼會走? [외부 ‘爲什麼’ > 조동사]  
 (阿Q는 **왜** 떠나려 하나요?)  
 b. 阿Q會爲(了)什麼辭職? [조동사 > 내부 ‘爲(了)什麼’]  
 (阿Q는 **무엇 때문에** 사직하려 하나요?)

3) 본고의 예문 주석에 사용된 축약어는 다음과 같다. 1S(first person singular, 1인칭 단수), 3S(third person singular, 3인칭 단수), Acc(accusative case, 대격), Aff(affective marker, 피영향자 표지), ApplP(applicative phrase, 부가논항구), AV(actor voice, 능동태), Cl(classifier, 양사), Dat(dative case, 여격), Eth.dat(ethic dative, 심성적 여격), EvaP(evaluative phrase, 평가구), Foc(focus marker, 초점표지), FP(focus phrase, 초점구), Inc(inchoative aspect, 기동상), IntP(interrogative phrase, 의문사구), Lnk(linker, 연결사), Nom(nominative case, 주격), Obl(oblique case, 사격), Past(past tense, 과거시제), Prf(perfective aspect, 완료상), Q(question particle, 의문조사), Rea(realis mood, 현실서법), Res(resultative aspect, 결과상), Top(topic marker, 주제표지).

실제로, Stepanov and Tsai(200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도 두 종류의 ‘why’ 의문문이 존재한다. 이유의 ‘počemu’는 (3a)처럼 반드시 부정사 앞에 출현해야 하지만, 목적에 상응하는 ‘začem’은 (3b)처럼 부정사 앞 출현이 불가능하다.

- (3) a. **počemu** vy ne skazali mne ob etom?  
 Why<sup>R</sup> you not said me-dat about this  
 (무슨 이유로 당신은 이 일에 대해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b. \***začem** vy ne skazali mne ob etom?  
 Why<sup>P</sup> you not said me-dat about this  
 (무슨 목적으로 당신은 이 일에 대해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한편, 이유(Why<sup>R</sup>)의 ‘počemu’는 비한정(indefinite) 의문사로서 부정의 작용역(scope)에 놓일 수 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목적(Why<sup>P</sup>)의 ‘začem’은 완벽하게 좋은 문장을 이룬다. (4a,b)의 대조는 이를 증명해 준다.

- (4) a. \*mne ne-**počemu** tuda xodit’.  
 me-dat not-why<sup>R</sup> there to-go  
 (\*나는 거기 갈 **이유**가 없다.)  
 b. mne ne-**začem** tuda xodit’.  
 me-dat not-why<sup>P</sup> there to-go  
 (나는 거기 갈 **목적**이 없다.)

이는 (5a,b)의 대조에 예시된 중국어 외부 ‘爲什麼’에서의 부정어 섬 효과(negative island effects)를 연상시킨다.<sup>4)</sup> 반면 내부 ‘爲(了)什麼’는 전치사구 형식으로 간주되므로, (6)과 같이 부정의 작용역 안에서 비한정적으로 해석됨으로써 구제될 수 있다(Tsai(1994a, b), Stepanov and Tsai(2008) 참조).

4) [역주] 섬 효과란 마치 고립된 섬에 갇힌 것처럼 성분이동 등 통사적 의존관계를 차단하는 현상을 말하며, 의문사, 절주어, 부사절, 부정사 등이 통사적 섬으로 작용한다. 가령, 예문 (6)의 ‘爲(了)什麼’가 [+N] 속성으로 변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과 달리, (5)의 의문부사 ‘爲什麼’는 의문운용자의 이동이 필수적인데, 부정사 ‘不’의 작용역 섬 안에 갇힌 (5b)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 (5) a. 阿Q爲什麼不離開? (阿Q는 왜 떠나지 않습니까?)  
 b. \*阿Q不爲什麼離開?  
 (6) 阿Q不爲(了)什麼離開。他只是不耐煩了!  
 (阿Q는 무엇인가 때문에 떠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참을 수 없었을 따름이지요!)

더욱이, 일본어 의문부사어에 관한 최근의 정치한 연구에서도 의문사 ‘nande(何で)’가 품사 속성뿐만 아니라 통사적 위치에 따라서 이유나 도구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Huang(1982), Fujii et al.(2014) 참조). 이러한 중의적인 해석은 (7a,b)에 예시되어 있다.<sup>5)</sup>

- (7) 真理は 何で 歸ったの?  
 Mari-wa nande kaetta-no?  
 Mari-Top NANDE left-Q  
 a. 마리는 어떻게 돌아갔나요? [도구]  
 b. 마리는 왜 돌아갔나요? [이유]

이 용례는 Tsai(2008a)에서 제시한 ‘how-why’의 교체현상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방증자료를 제공해 준다. 즉, 이러한 중의성은 (8a)처럼 ‘nande(何で, 도구/이유)’를 상응하는 비축약형식의 전치사구 ‘nani-de(なにで, 무엇-으로)’로 대체하거나, (8b)처럼 담화연결제거 표지(de-D-linking marker)인 ‘mata(また, 또)’를 추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sup>6)</sup>

5) [역주] (7-10)의 일본어 예문과 설명에서 일본어 원어표기는 역자가 추가한 것이다.  
 6) ‘nande(何で, 왜)’는 영어의 ‘how’에 보이는 일반적인 방법(manner)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Fujii et. al.(2014:[역주] 원문의 ‘2010’은 오자이므로 ‘2014’로 교정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mata(また[又·復·亦], 또)’가 ‘nande(何で, 왜)’와 함께 억양군(intonation group)을 이루지 않는다면, ‘mata(また)’는 ‘다시’로 해석되며, ‘nande(何で)’의 도구 의미도 살아난다.  
 [역주] Fujii et. al.(2014)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부사어와 함께 출현하는 ‘mata(また)’를 ‘강조/감탄’의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의문부사어가 이유로 해석될 때의 억양은 nande mata이고, 도구로 해석될 때는 nande mata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담화연결된 의문사는 섬 효과 제약에 둔감하다는 Pesetsky(1987)의 견

- (8) a. 真理は なにで 歸ったの?  
 Mari-wa nani-de kaetta-no?  
 Mari-Top what-with left-Q  
 (마리는 무엇으로/무슨 수단으로 돌아갔나요?) [도구]
- b. 真理は 何で また 歸ったの?  
 Mari-wa nande mata kaetta-no?  
 Mari-Top NANDE on.earth left-Q  
 (마리는 왜 또 돌아갔나요?) [이유]

흥미로운 점은, (9a)처럼 도구의 ‘nande(何で, 이후 nande<sup>1</sup>로 지칭)’와 그 전 치사구 형식만이 ‘kanarazu(必ず, 반드시)’, ‘tokidoki(時々, 때때로)’ 등의 문장 부사어 뒤에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동일한 배열이라 할지라도, 이와 대응되는 이유를 묻는 의문문은 (9b)와 같이 차단된다.

- (9) 広しは 必ず / 時々 何で<sup>1</sup> / なにで  
 Hiroshi-wa kanarazu/ tokidoki nande<sup>1</sup>/ nani-de  
 Hiroshi-Top necessarily/ sometimes how/ what-with  
 お粥を 食べるの?  
 okayu-o taberu-no?  
 rice.congee-Acc eat-Q  
 a. 히로시는 반드시/때때로 어떻게/무엇으로 죽을 먹나요? [도구]  
 b. #히로시는 반드시/때때로 왜 죽을 먹나요? [\*이유]

이와 달리, (10a,b)는 ‘nande(何で)’가 ‘mata(また, 또/강조)’와 함께 이들 부사어 앞에 출현하면 이유의 뜻이 분명해지고(이후 ‘nande<sup>R</sup>로 지칭) 도구의 해석은 차단됨을 보여준다.

- (10) 広しは 何で<sup>R</sup> また 必ず / 時々  
 Hiroshi-wa nande<sup>R</sup> mata kanarazu/ tokidoki  
 Hiroshi-Top why on.earth necessarily/ sometimes

---

해를 참고할 때, 강조의 ‘mata(また)’가 출현하면 이유의 해석이 부각되면서 섭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Tsai(2015)는 이를 담화연결제거 표지로 간주한 것이라 추정된다.

- お粥を                    食べるの?  
 okayu-o                  taberu-no?  
 rice.congee-Acc        eat-Q  
 a. #히로시는 **어떻게** 또 반드시/때때로 죽을 먹나요?    [\*도구]  
 b. 히로시는 **왜** 또 반드시/때때로 죽을 먹나요?        [이유]

통시적인 측면에서, 내부-외부 이분법은 조우어(Tsou)에서도 그 논거를 찾아볼 수 있다.<sup>7)</sup> 먼저 (11a)를 살펴보면, ‘maienu(어떻게/왜)’는 동사술어로서 접속사 ‘ho’에 의해 주요술어에 연결되는데, ‘ho’는 어휘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통제보충어(control complement)를 이끄는 보문소(complementizer)로 변화한다 (Tsai and Chang(2003), Tsai(2007a) 참조).

- (11) a. m-i-ta            **m-ainenu**    **ho**            m-i-ta            eobak-o  
 AV-Rea-3S    AV-how    Lnk    AV-Rea-3S    hit-AV  
 ta-Mo’o        ‘e-Pasuya?  
 Obl-Mo’o        Nom-Pasuya  
 (어떻게 Pasuya는 Mo’o를 때렸나요?)                    [도구/ 방법/ 결과]  
 ([직역] Pasuya가 Mo’o를 때렸고 그리고 어떻게?)
- b. m-i-ta            **m-ainenu**    [**ci**            m-i-ta            eobak-o  
 AV-Rea-3S    AV-how    such.that    AV-Rea-3S    hit-AV  
 ta-Mo’o]        ‘e-Pasuya?  
 (어째서 Pasuya는 Mo’o를 때렸나요?)                    [원인]  
 ([직역] Pasuya는 어째서, 그래서 Mo’o를 때렸나요?)
- c. m-i-ta            **m-ainci**    eobak-o    ta-Mo’o        ‘e-Pasuya?  
 AV-Rea-3S    AV-why    hit-AV    Obl-Mo’o    Nom-Pasuya  
 (왜 Pasuya는 Mo’o를 때렸나요?)                    [이유]

또한 ‘maienu(어떻게/왜)’는 (11b)처럼 ‘ci(그래서)’가 이끄는 정형절(finite clause)을 보충어로 수반하는 모문의 술어(matrix predicate)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원인을 묻는 의문문이 형성된다. 어휘발전이 더 진행되면 두 개의

7) [역주] 조우어(Tsou, 鄒語)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대만 남동 지역 원주민에 의해 사용된다.



절 구조(bi-clausal structure)가 붕괴되어, (11c)처럼 ‘maienu(어떻게/왜)’와 ‘ci(그래서)’가 문장부사어 ‘mainci(왜)’로 축약된다. 이는 ‘how’ 의문문과 ‘why’ 의문문을 나누는 내부-외부 구분에 대한 또 다른 실례를 제공해준다.

## 1.2 내부 재귀사 vs. 외부 재귀사<sup>8)</sup>

외부 부사어는 사건구조의 해석(eventuality construals), 특히 사건 층위의 인과관계(event-level causation) 해석과 강력한 대응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why’ 의문문을 물을 때는 본질적으로 현재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의 존재를 전제하고 청자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구하게 된다(Karttunen(1977), Bromberger(1992) 참조). 이러한 층위에서, 외부 의문부사어는 항상 주어의 작용역을 넘어서게 된다. 그 결과, 도구의 ‘how’와 목적의 ‘why’ 등 상응하는 내부 부사어에서 보이는 주체성(agentivity) 제약이 관찰되지 않는다. 즉, 내부 부사어는 엄격하게 주체지향적(agent-oriented)으로, 영어 ‘with’의 다양한 용법과 관련된 원형적 동반성(proto-comitativity)을 나타낸다(Tsai(2008a) 참조).<sup>9)</sup> 비대격 구문(unaccusative construction) (12)와 장소-존재 구문(locative-existential construction) (13)에서 도구의 해석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되듯이, 비주체 주어는 오직 외부 의문부사어와만 함께 쓰일 수 있다.

- (12) 那本書怎麼/\*怎麼樣出現了?  
 a. 어째서 그 책이 나타났지요?  
 b.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그 책이 나타났지요?

8) [역주] 이 절에서 다루는 논의의 중심은 재귀부사 ‘自己’의 통사적 분포 및 의미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에서 원문의 ‘selfhood’를 ‘재귀사’로 번역하였다.

9) [역주] 영어의 전치사 ‘with’는 ‘함께(in company with, together with)’의 뜻에서 ‘수단(using, by means of)’ 등의 의미로 확장되어 다양하게 해석된다. 여기서 원형적 동반성이란 ‘with’의 기본 의미로서의 ‘함께’를 지칭하며, 이는 ‘自己(혼자서)’의 재귀사적 용법과 구분된다.

(13) 從法國怎麼/\*怎麼樣來了三個工程師?

- a. 어째서 프랑스에서 기술자 세 명이 왔지요?
- b.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프랑스에서 기술자 세 명이 왔지요?

다음에 예시된 바와 같이, 중국어 ‘爲什麼’의 대응쌍에서도 이와 동일한 비대칭 현상이 통용된다.

(14) 那本書爲什麼/\*爲(了)什麼出現了?

- a. 왜 그 책이 나타났지요?
- b. #무엇 때문에 그 책이 나타났지요?

(15) 從法國爲什麼/\*爲(了)什麼來了三個工程師?<sup>10)</sup>

- a. 왜 프랑스에서 기술자 세 명이 왔지요?
- b. #무엇 때문에 프랑스에서 기술자 세 명이 왔지요?

실제로 중국어 재귀부사어(reflexive adverbials)에서도 내부-외부 이분법과의 평행성이 발견된다. (16a)에서 조동사 앞 위치의 ‘自己’는 (타인에 의한 강압이나 설득을 수반하지 않는) 반(反) 원인격/사동주(anti-causal)로 해석되고, (16b)에서 조동사 뒤 위치의 ‘自己’는 (타인의 동반이나 도움이 배제된) 반(反) 동반격(anti-comitative)으로 해석된다.

- (16) a. 阿Q自己會處理這件事。 [외부 ‘自己’ > 조동사]  
(阿Q는 스스로/자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 b. 阿Q會自己處理這件事。 [조동사 > 내부 ‘自己’]  
(阿Q는 혼자서/직접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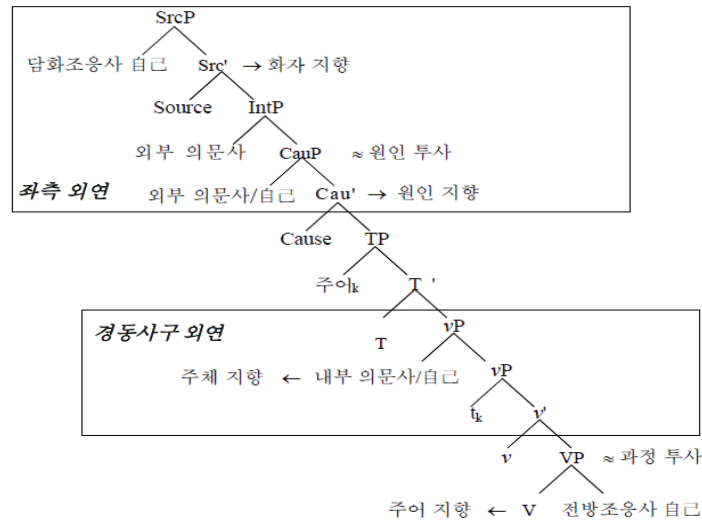
내부 재귀부사어의 해석에 있어서도 주어의 주체성 효과가 다시금 관찰된다. 비대격문 (17)과 장소-존재문 (1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오직 반(反) 원인격/사동주의 해석만 잔존하고, 반(反) 동반격 해석은 차단된다.

10) [역주] Tsai(2015)의 원문에서 예문 (15)는 “從法國怎麼/\*爲(了)什麼來了三個工程師?”로 되어 있으나, ‘怎麼’는 ‘爲什麼’의 오기로 판단되어 번역문에서 바로잡았다.

- (17) 那本書自己出現了。
  - a. 그 책은 (사람의 개입 없이) 저절로 나타났다.
  - b.#그 책은 혼자 나타났다.
- (18) 從法國自己來了三個工程師。
  - a. 프랑스에서 (초대 없이) 자발적으로 기술자 세 명이 왔다.
  - b.#프랑스에서 기술자 세 명이 스스로/직접 왔다.

이러한 평행성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외부 의문부사어와 외부 재귀부사어는 (반)인과성/사동성((anti-)causality)을 나타내고, 내부 의문부사어와 내부 재귀부사어는 (반)동반성((anti-)comitativity: 즉, Parsons(1995)의 ‘with’-관계)을 나타낸다. Rizzi의 보문소 분할 분석(split-CP analysis)에 근거하여, 본고는 외부 부사어의 특징을 좌측 외연에 연계시키고, 내부 부사어의 속성은 Belletti(2004, 2008)을 따라 경동사구 외연에 귀속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 두 가지 외연은 Chomsky(2000, 2001)의 보문소구와 경동사구라는 두 강국면(strong phase)의 외곽에 대략적으로 대응된다. 따라서 내부-외부 이분법을 다음 수형도 (19)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9) 중국어 재귀부사어의 지형도(topography)



Ramchand(2008)에서 원인투사(causation projection)와 경동사구 내부의 과정투사(process projection)를 구분한 것에 기초하여, 본고는 좌측 외연의 원인투사(CauP)를 앞서 언급한 사건구조의 인과관계에 대응시키고자 한다(Shlonsky and Soare(2011) 참조). 따라서 원인투사의 지정어(specifier: Spec) 위치가 외부 재귀사와 의문부사어를 위한 자리를 제공해 준다. 다만 원인의 '怎麼'는 이탈리아어의 'perché'나 영어의 'how come'과 같이 의문사구(interrogative phrase: IntP)의 핵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자세한 논의는 Tsai(2008a)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내부 재귀사와 내부 의문부사어는 본질적으로 주체 지향적이다. 이들은 통사적으로 경동사구의 부가어로 기능하는 한편, 의미적으로는 초점 운용자(focus operator)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Tsai(근간) 참조).

한편, 논항으로 기능하는 재귀사는 전방조응사(anaphor)처럼 동사구 내부에 머물러 전형적으로 주어를 지향(subject-oriented)하거나, 담화조응사(logophor)처럼 보다 상층부의 이른바 원천구(source phrase: SrcP)에 위치하여 화자를 지향(speaker-oriented)한다(Huang and Liu(2000) 참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국어 내부-외부 부사어의 통사-화용적 대응관계는 두 가지 외연 분석에 강력한 논거를 제공해준다. 한 가지 언급할 만 한 흥미로운 점은, 이탈리아어에서 경동사구 내부의 초점 위치에 출현하는 강대명사 중복(doubled strong pronoun)은 부사어와 유사하게 '직접'이라는 뜻을 초래한다는 점이다(Belletti(2005) 참조). 다음 예문을 보자.

- (20) Maria manderà suo fratello, invece **Gianni** verrà **lui**.  
 Maria will.send her brother but Gianni will.come he  
 (Maria는 오빠를 보내지만, **Gianni**는 스스로/직접 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 소위 '강대명사 중복'은 내부 재귀사가 경동사구 외연에 연계되어 있다는 본고의 주장에 언어 교차적인 입증자료를 제공해준다. 재귀사와 초점해석 및 경동사구 외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본문 후반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2. 내부 경동사 vs. 외부 경동사

중국어에 두 부류의 경동사가 존재하며, 놀랍게도 이들 또한 이제는 익숙해진 내부-외부의 비대칭을 보인다는 사실은 본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또 다른 실례를 제공해준다(Tsai(2007b) 참조). Huang(1994, 1997)의 초보적 연구에서 최초로 논의된 바 있듯이, 그 첫 번째 부류로는 'CAUSE(사동/원인)' 등의 사건구조 술어를 포함한다. 예문 (21)에 보이는 통사-의미의 부조화(syntax-semantics mismatch)는 그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를 (22)와 평행하게 분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22)는 어휘적 사동사(lexical causative verb) '讓(시키다)'이 출현하고, 결과술어복합어 '吃得(먹다-得)'를 일반적인 위치로 복귀시킨 것이다.<sup>11)</sup>

(21) 那頓飯吃得阿Q火冒三丈。

([직역] 그 밥은 먹어서 阿Q로 하여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했다.)

(22) 那頓飯讓阿Q吃得火冒三丈。

(그 밥은 阿Q로 하여금 먹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했다.)

특히 본고에서는 (23a)에 제시된 바와 같이, (21)의 함축적인 사동사

11) 경동사는 함축적(implicit, [역주: 음성으로 실현되는 외현적인 형식이 부재한])이고 통사적으로 주요술어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본고는 여기서 논의되는 'CAUSE'로의 인상(raising)이라는 해석을 융합(incorporation)의 용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Huang(2004)에서는 중국어는 영어와 달리 분석적인 통사 구문을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유용한 실례로 경동사 '打(치다)'를 들 수 있다. 영어에서는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denominal verb) 'telephone(전화/전화를 걸다)'을 사용함에 비하여, 중국어에서는 '분해된(decomposed)' 대응체로서 '打電話(전화를 걸다)'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앞선 사동구문을 융합보다는 동사 이동의 예시로 간주한다. 또한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함축적인 사동 경동사와 그에 상응하는 어휘 형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CAUSE'는 '讓(시키다)'이 문법화된 결과물이나, '讓(시키다)'은 여전히 대부분의 동사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CAUSE’가 (22)의 어휘적 대응체(counterparts)와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놓이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 (23) a. 那頓飯 **CAUSE** 阿Q吃得火冒三丈。 [외부 경동사]  
 ([직역] 그 밥은 阿Q(로 하여금) 먹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했다.)  
 ⇒ b. 那頓飯 [吃得]<sub>k</sub> + **CAUSE** 阿Q t<sub>k</sub> 火冒三丈。 [외부 경동사로 인상]  
 ([직역] 그 밥은 먹어서 阿Q로 하여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했다.)

이 함축적 술어는 사동주/원인(Cause)을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으로, 결과사건(effect event)을 보충어로 취한다.<sup>12)</sup> (21)은 결과동사(resultative verb) ‘吃得(먹다-得)’를 ‘CAUSE’로 인상함으로써 도출되는데, 이는 ‘CAUSE’가 음운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음운형식(Phonetic Form: PF)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동사 인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up>13)</sup>

12) [역주] 전통적인 중국어 문법에서 (21-23)과 같은 술어 뒤 후속성분을 ‘보어’라는 문법용어로 지칭하지만, 원문의 ‘complement’는 핵과의 관계에 입각한 구조적 측면을 포괄하므로, ‘보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3) 익명의 심사자는 아래 (i)의 대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 (i) a. 課文念得學生口乾舌燥。  
 ([직역] 본문은 읽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입이 마르게 했다.)  
 b. \*老師念得學生口乾舌燥。

비주체 주어(non-agentive subject)는 함축적 외부 경동사 ‘CAUSE’와 양립할 수 있지만, 주체 주어(agentive subject)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상과 달리, 아래 제시된 ‘CAUSE’의 어휘적 대응체인 ‘讓’은 이 두 경우 모두에서 문법적이다.

- (ii) a. 課文讓學生念得口乾舌燥。  
 (본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읽어서 입이 마르게 했다.)

- b. 老師讓學生念得口乾舌燥。  
 (선생님은 학생들로 하여금 읽어서 입이 마르게 했다.)

심사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b)의 비문법성은 일종의 의미역 충돌(thematic conflict)이라는 형식에서 기인한다. 또 한편으로는, 종종 형태-통사적으로 구현되는 두 유형의 사동관계(causation)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즉, 주체적

경동사의 두 번째 부류로는 도구, 장소, 수혜자(benefactive) 등 동태적 속성(dynamic properties) 및 대조초점(contrastive foci)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을 포함한다(대표적으로 Lin(2002), Feng(2003, 2005)을 참조). (24)의 도구 해석을 예로 들어 보자. 이 또한 통사-의미 부조화의 일례로, (25)와 같이 어휘적 경동사 ‘用(쓰다)’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24) 你切那把刀, 我切這把刀。  
 (너는 저 칼로 자르고, 나는 이 칼로 자른다.)  
 (25) 你用那把刀切, 我用這把刀切。  
 (너는 저 칼을 써서 자르고, 나는 이 칼을 써서 자른다.)

통사-의미적인 측면에서 (24)에 ‘用(쓰다)’에 대응되는 함축적 경동사 ‘USE’의 존재를 (26a)처럼 가정한다면, 동사 ‘切(자르다)’를 ‘USE’로 인상함으로써 (26b)와 같이 문장을 도출할 수 있다.

- (26) a. 你 **USE** 那把刀切, 我 **USE** 這把刀切。 [내부 경동사]  
 ⇒ b. 你切<sub>j</sub> + **USE** 那把刀 t<sub>j</sub>, 我切<sub>k</sub> + **USE** 這把刀 t<sub>k</sub> [내부 경동사로 인상]  
 (너는 저 칼로(저 칼을 써서) 자르고, 나는 이 칼로(이 칼을 써서) 자른다.)

통사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부류의 경동사는 보문소구 층위(CP layer)에서 기능투사의 핵(head)으로 기능하리라 추정되므로, 이를 ‘외부 경동사’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번째 부류는 경동사구 투사의 핵으로 추정되므로,

---

사동(agentive causation)과 사건적 사동(eventual causation)의 두 유형으로, 이는 Pesetsky의 심리동사 연구에서 구분한 주체-비주체 사동주에 대략적으로 대응된다. 이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내부-외부 이분법은 (ia, b)의 어휘적 사동 경동사 讓(시키다)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함축적 사동사 ‘CAUSE’는 항상 외부 경동사 위치에만 출현한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CAUSE’는 경동사구 외곽에서 주체 주어 ‘老師(선생님)’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ib)는 비문법적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적 흐름은 의문사와 재귀사에서도 오직 내부 부사어에서만 주체 주어가 관찰된다는 일반적인 경향성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내부 경동사’라 부르기로 한다. 이 두 부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통사적 검증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검증법은 본질적으로 경동사구 내부 현상의 일종인 중국어 동사중첩(verb-copying)과 관련되어 있다. 본고의 논리에 따르면, ‘CAUSE’로의 인상은 이동의 종착점이 경동사구 외연을 넘어서게 되므로, (27a)처럼 동사중첩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USE’로의 인상은 경동사구 외연 안에서 내부 경동사 위치와만 관련되므로, 동사중첩과 온전히 양립 가능하다. (27b)는 이를 증명해준다.

- (27) a. \*那頓飯 吃<sub>k</sub> + CAUSE 我 吃<sub>k</sub> 得火冒三丈。 [외부 경동사]  
 b. 我 切<sub>k</sub> + USE 那把刀 切<sub>k</sub> 得直冒汗。 [내부 경동사]  
 (나는 저 칼로(저 칼을 써서) 잘라서 줄곧 땀을 흘렸다.)

두 번째 검증법은 (2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경동사가 다양한 유형의 술어 뒤 보충어를 수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CAUSE’와 같은 외부 경동사는 전형적으로 결과성 해석과 연계되며, 이 결과성은 Ramchand(2008)에서 제안된 결과투사(result projection)로 구현될 것이다. 덧붙여, ‘COST’라고 명명되는 또 다른 유형의 함축적 외부 경동사가 존재한다(Gu(2002) 참조). (28)에서 주요술어 ‘看了(보았다)’는 앞선 논의와 유사하게 ‘COST’로 인상함으로써 전형적으로 술어 뒤 위치에 시량 표현 ‘一下午(한나절)’를 매개한다.<sup>14)</sup>

- (28) 這本書 [看了]<sub>k</sub> + COST 我 t<sub>k</sub> 一下午。  
 (이 책은 내가 읽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14) 익명의 심사자는 중국어 경동사의 광범위한 목록이 논쟁거리임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어 경동사의 이론적인 지위는 여전히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아프리카어와 대등하게 부가태 형태소(applicative morpheme)로서 ‘AFFECT’를 설정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COST’는 ‘사동 ... 소비하다(cause ... to spend)’로 더 분해할 수 있으므로, ‘COST’를 ‘CAUSE’로 축소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고에서는 Huang(1994, 1997), Feng(2003, 2005), Lin(2001)에서 논의된 핵심적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러나 내부 경동사는 이 두 번째 검증법을 통과하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29a)처럼 ‘很累(매우 피곤하다)’와 같은 결과보충어가 출현할 때 ‘USE’로의 인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29b)를 통해 예증되듯이, 결과 해석과 어휘적 경동사는 완벽하게 함께 쓰일 수 있다.<sup>15)</sup>

- (29) a.\*我 [切得]<sub>k</sub> + USE 那把刀 <sub>t<sub>k</sub></sub> 很累。  
 b. 我用這把刀切得很累。  
 (나는 이 칼을 써서 잘라서 매우 피곤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동일한 제약이 (30a)의 시량 해석에서도 충분히 관찰된다. 즉, 주요 동사 ‘切(자르다)’는 함축적 경동사 ‘USE’로 부가되는데 지장이 있는 반면, 그 어휘적 대응체인 ‘用(쓰다)’은 (30b)와 같이 ‘USE’로의 인상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조 유형으로부터 예측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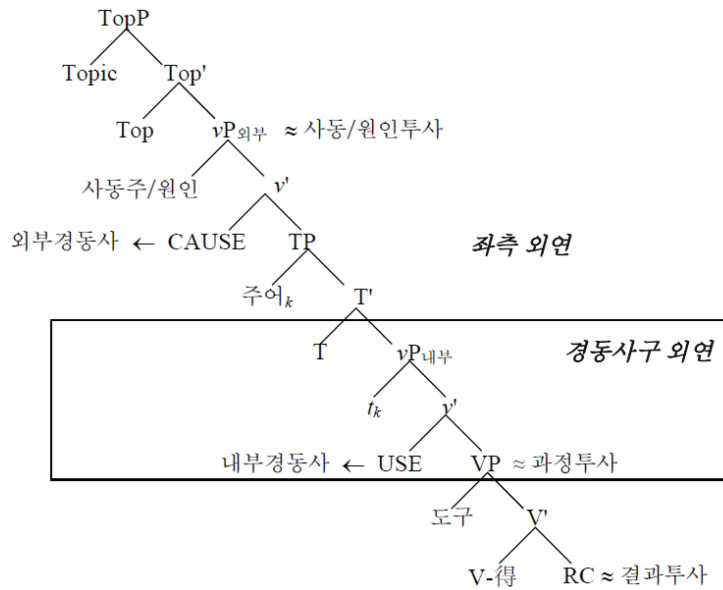
- (30) a.\*你 切<sub>k</sub> + USE 那把刀 <sub>t<sub>k</sub></sub> 五分鐘。  
 b. 我用那把刀切五分鐘。  
 (나는 저 칼을 써서 5분 동안 자른다.)

의미적 측면에 있어서, 내부 부사어와 내부 경동사뿐만 아니라 외부 부사어와 외부 경동사 사이에서도 해석상의 유사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즉, 외부 부사어와 경동사는 모두 인과성/사동성과 관련되며, 내부 부사어와 경동사는 도구/동반자(Comitant) 및 이와 상응하는 사건 사이에 ‘with’-관계가 결부되어 있다. Parsons(1995), Tsai(근간) 참조). 이상의 모든 관찰은 지형학적 접근법(cartographic approach)에 입각한 통사적 지형도(syntactic topography)의 측면에서 외부와 내부 경동사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결론에 이르

15) (29a)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방편으로, ‘USE’로의 인상은 강제적인 통제구문(obligatory control configuration)을 이룬다고 제안해 볼 수 있다. 따라서 (29a)의 비문법성은 ‘칼이 매우 피곤해지도록’이라는 화용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해석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게 한다(대표적으로 Rizzi(1997), Cinque(1999) 참조). 이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RC: resultative complement, 결과보충어).

(31) 중국어 경동사의 지형도



언어 교차적인 관점에서, 두 층위의 사동/원인 투사가 존재하며 그 내부-외부의 구분은 다양한 형태-통사적 검증법에 기초한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Svenonius(2005) 등 참조). 더 나아가, 본고의 이론은 내부와 외부 경동사는 문제가 되는 문장 투사와 함께 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가능하다. (32)에 예시된 바와 같이, 사동과 도구 용법을 한 문장 안에 결합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외부논항 ‘那把刀(저 칼)’은 사동주와 도구라는 두 의미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2) 那把刀切得我很累。  
 ([직역] 그 칼로 잘라서 나로 하여금 매우 피곤하게 했다.)

여기에서 ‘那把刀(저 칼)’는 실질적으로 좌측 외연의 ‘CAUSE’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전통적 의미에서의 영 운용자(null operator) 이동을 통해 동사구의 지정어 위치에서 도구격 논항과 동일시된다(Chomsky(1977, 1986) 참조). 반면, 주요동사 ‘切得(자르다-得)’는 먼저 핵이동을 통해 내부 경동사 ‘USE’와 결합하며, 이어서 결과술어복합어 ‘切得<sub>i</sub> + USE’가 외부 경동사 ‘CAUSE’에 부가된다.<sup>16)</sup> 이 전체 도출과정은 다음 (33)의 수형도로 도식화할 수 있다.

16) 심사자는 영 운용자 분석에 대해 몇 가지 잠재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동술어가 영 운용자 구문을 그 보충어로 수반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왜 외부 경동사는 ‘tough’ 술어(*tough-predicate*)나 중국어의 장거리 피동(long passive)처럼 기능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선험적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 경험적 측면에서, 이러한 분석은 (32)가 영 운용자의 해석에 잉여대명사(resumptive pronoun)를 허용할 수 있다고 잘못 예측할 수 있다. (i)의 비문법성은 이를 보여준다.

(i)\*[那把刀]<sub>k</sub> [Op<sub>k</sub> [切得 我 它<sub>k</sub> 很累]].

그러나 잉여대명사 전략에 대한 제약은 매우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다. 즉, (iib)의 부적절함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CAUSE’의 주어는 무생물(inanimate)로, 중국어에서 무생물 논항은 전형적으로 잉여대명사를 인가하지 못한다.

(ii) a. 課文<sub>k</sub>, 我很喜歡 e<sub>k</sub>. (본문은 내가 좋아한다.)

b.\*課文<sub>k</sub>, 我很喜歡它<sub>k</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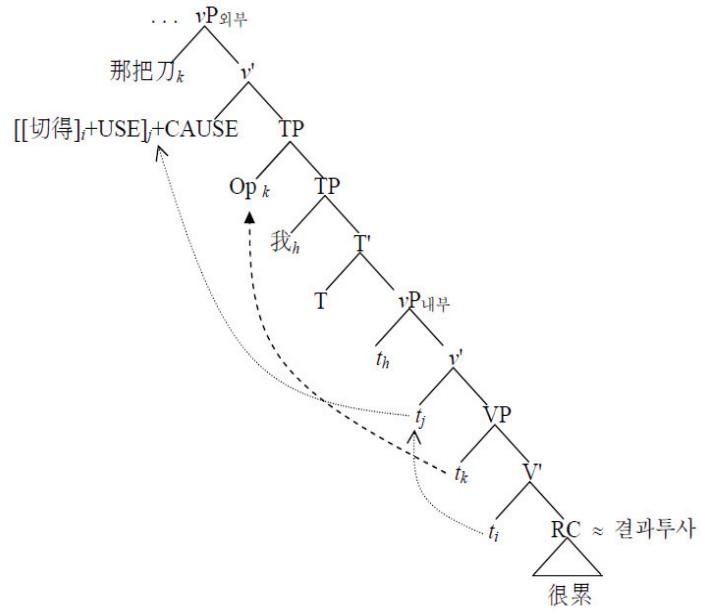
다음 대조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무생물 주어를 수반하는 중국어 장거리 피동문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관찰된다.

(iii) a. 課文<sub>k</sub> 被我刪掉了 e<sub>k</sub>. (본문이 나에게 의해 삭제되었다.)

b.\*課文<sub>k</sub> 背我刪掉了它<sub>k</sub>.

사실 잉여대명사 전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중국어 3인칭 대명사가 [+사람]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으로, 무생물로 해석될 때 이들의 분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33)



## 【참고문헌】

- Belletti, Adriana. 2004. "Aspects of the Low IP Area". In *The Structure of CP and IP*, edited by L. Rizzi, 16-5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lletti, Adriana, 2005. "Extended Doubling and the VP Periphery". *Probus* 17(1): 1-35.
- Bromberger, Sylvain. 1992. *On What We Know We Don't Know*.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Chomsky, Noam. 1977. "On Wh-Movemnet". In *Formal Syntax*, edited by P. Culicover, T. Wasow and A. Akmajian, [date t/k]. New York: Acaemic Press.
- Chomsky, Noam.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homsky, Noam.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ited by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89-155.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ited by Michael Kenstowicz, 1-52. Cambridge, MA: MIT Press.
- Cinque, Guglielmo. 1990. *Types of A' Dependencies*. Cambridge Mass: MIT Press.
- Cinque, Guglielmo. 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Chris. 1991. "Why and How Com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5: 31-45. Cambridge: MIT.

Cuervo, M. 2003. "Datives at Large". Ph.D. diss., MIT.

Diesing, Molly. 1992. *Indefinites*. Cambridge, MA: MIT Press.

Feng, Shengli. 2003. "Light Verb Syntax in Classical Chines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search and Pedagogy in Classical Chinese and Chinese Language History.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March 2003.

Feng, Shengli. 2005. *Studies on Chinese Prosodic Grammar*.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Fujii, Tomohiro, Kensuke Takita, Barry Chung-Yu Yang and Wei-Tien Dylan Tsai. 2014. "Comparative Remarks on Wh-adverbials in Situ in Japanese and Chinese". In *Japanese Syntax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Mamoru Saito, 181-205. Oxford University Press.<sup>17)</sup>

Gu, Yang. 2002. "On the Event Structure of the Causative Predicate *Shi* in Mandarin Chinese". Paper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 Aichi Prefectural University, Nagoya, August 2002.

Huang, C.-T. James.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Ph.D. dis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uang, C.-T. James. 1994. "Verb Movement and Some Syntax-Semantics Mismatches in Chinese".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2(39): 587-613.

---

17) [역주] 원문에 출판연도가 'Forthcoming, 2014'로 병기되어 있는 것을 '2014'로 바로잡고 누락된 쪽수를 추가하였다.

- Huang, C.-T. James. 1997. "On Lexical Structure and Syntactic Projection".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3: 45-89.
- Huang, C.-T. James. 2004. "Syntactic Analyticity and Parametric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12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 Nankai University, Tianjin, June 2004.
- Huang, C.-T. James, and Luther C.-S. Liu. 2000. "Logophoricity, Attitudes and *Ziji* at the Interface". In *Syntax and Semantics, vol. 33: Long-Distance Reflexives*, edited by Peter Cole, Gabriella Hermon and C.-T. James Huang, 141-195. New York: Academic Press.
- Jaeggli, Osvaldo. 1982. *Topics in Romance Syntax*. Dordrecht: Foris.
- Karttunen, Lauri. 1977. "The Syntax and Semantics of Question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3-44.
- Kikushima, Kazunori. 2013. "On the Architecture of Modals and Applicatives in Japanese: A Cartographic Analysis." Ph.D. diss.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aiwan.
- Lin, T.-H. Jonah. 2001. "Light Verb Syntax and the Theory of Phrase Structure".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Michelioudakis, Dimitris and Ioanna Sitaridou. 2008. "The Ethic Dative in Modern Greek and Romance". Paper presented at the 29th Annual Meeting of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Aristotelian University of Thessaloniki, May 2008.
- Parsons, Terence 1995. "Thematic Relations and Arguments". *Linguistic Inquiry* 26(4): 635-662.
- Perlmutter, David. 1971. *Deep and Surface Structure Constraints in Syntax*.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 Ramchand, Gillian. 2008. *Verb Meaning and the Lexicon: A First*

- Phase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i, Luigi.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Elements of Grammar: Handbook of Generative Syntax*, edited by L. Haegeman, 281-338. Dordrecht: Kluwer.
- Rizzi, Luigi. 2001. "On the Position of 'Int(errogative)' in the Left Periphery of the Clause". In *Current Studies in Italian Syntax: Essays Offered to L. Renzi*, edited by G. Cinque and G. Salvi, 287-296. New York: Elsevier.
- Shlonsky, Ur and Gabriela Soare. 2011. "Where's 'Why'?". *Linguistic Inquiry* 42(4): 651-669.
- Stepanov, Arthur, and W.-T. Dylan Tsai. 2008. "Cartography and Licensing of WH-Adjunct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26(3): 589-638.
- Svenonius, Peter. 2005. "Two Domains of Causatives". Ms., CASTL, University of Tromsø.
- Tsai, W.-T. Dylan. 1994a. "On Nominal Islands and LF Extraction in Chinese."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12(1): 121-175.
- Tsai, W.-T. Dylan. 1994b. "On Economizing the Theory of A-bar Dependencies". Ph.D. dis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Tsai, W.-T. Dylan. 1999. "On Lexical Courtes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8(1): 39-73.
- Tsai, W.-T. Dylan. 2001. "On Subject Specificity and Theory of Syntax-Semantics Interfac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0(2): 129-168.
- Tsai, W.-T. Dylan. 2007a. "Conjunctive Reduction and its Origin: A Comparative Study of Tsou, Amis, and Sqliq Atayal".



*Oceanic Linguistics* 46(2): 585-602.

- Tsai, W.-T. Dylan. 2007b. "Two Types of Light Verbs in Chinese".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Meeting of the 15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 and the 19th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Chinese Linguistic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ity, May 2007.
- Tsai, W.-T. Dylan. 2008a. "Left Periphery and *How-Why* Alternation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7(2): 83-115.
- Tsai, W.-T. Dylan. 2008b. "Object Specificity in Chinese: A View from the *vP* Periphery", *The Linguistic Review* 25(3-4): 479-502.
- Tsai, W.-T. Dylan. 2012. "High Applicatives Are Not High Enough: A Cartographic Solution". Paper presented in the 14th Chin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emporary Linguistics, Xi'an Foreign Language University, Xi'an, May 2012.
- Tsai, W.-T. Dylan. Forthcoming. "Causality, Comitativity, Contrastivity, and Selfhood". In *Interfaces in Grammar*, edited by Jianhua Hu and Haihua Pan.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Tsai, W.-T. Dylan and Melody Y.-Y. Chang 2003. "Two Types of Wh-Adverbials: A Typological Study of How and Why in Tsou". In *The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vol. 3*, edited by Pierre Pica, 213-236. Philadelphia: John Benjamins.

A Tale of Two Peripheries:  
Evidence from Chines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and Object Fronting (1)

Wei-Tien Dylan Tsai

Translated by Jeong-Hyun Lim

Abstract

This paper is a translation of the first half part of Tsai(2015)'s influential work, which provides new insights into the architecture of Chinese grammar, particularly in mapping out the topography of Chinese functional elements. Tsai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Chinese functional elements is concentrated in two specific areas (i.e., the *vP* periphery and the left periphery), which in turn are associated with comitativity and causality respectively through the syntax- semantics interface. Both language-internal and cross-linguistic evidence from *wh*-/reflexiv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and object fronting lend strong support to the existence of the inner-outer dichotomy. These findings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yntax- semantics mapping under the cartographic approach.

Key words: *vP* periphery, left periphery, inner-outer dichotomy,  
*wh*-/reflexive adverbials, light verbs, applicatives, focus

투고일: 2018. 12. 4. / 심사일: 2018. 12. 9. ~ 12. 24. / 게재확정일: 2018. 12. 28.